다산포럼

줄기세포 비망록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영화 '제보자'는 175만여 명이 관람하고 막을 내렸다. 제작진의 기대에는 못 미쳤겠지만 '명량'과 '해적'이 영화시장을 한바탕 쓸고 간 직후에 개봉된 점을 감안하면 선전한 셈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영화사 '수박'의 정성훈 대표는 '줄기세포 사기·날조극'을 파헤친 MBC 피디수첩의 한학수 피디가 쓴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 드려야 할까요?—황우석 사태 취재 파일'을 흥미진진하게 읽었다면서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는 내게 영화 제작에 도움을 달라고 했다. 얼마 뒤 나를 찾아온 감독, 시나리오 작가 내정자들과 함께 한 피디의 책과 영화 제작에 관해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황우석 전 교수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논문을 날조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세상을 오도한, 즉 사기를 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은 검찰이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김 아무개 연구원의 책임이 더 크고, 황 전 교수도 그 점에서는 속은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가 꺼려진다고 했다.(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회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이 감독과 작가 직을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임순례 감독은 네 번째로 선임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영화 제작이 순탄치 않았던 모양이다.

2005년 12월 4일 밤, YTN의 '청부 취재와 보도'로 피디수첩은 난파 위기에 처했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바로 몇 시간 뒤인 5일 새벽 5시 28분,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전문 연구자들의 온라인 대화 장소인 브릭의 '소리마당'이 열기를 뿜기 시작했다.

닉네임이 'anonymous'인 한 전직 연구자가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제목부터 매력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반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6일 새벽 0시 19분, 이번엔 닉네임 '아릉'이 전날의 열띤 분위기에 힘을 얻어 올린 "DNA finger→printing 데이터 살펴보기"로 진실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

'anonymous'는 황 교수팀 논문이 날조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고, '아릉'은 줄기세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은 5일엔 어설프게나마 대응했지만, 6일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두 빼어난 무명 과학자의 문제 제기, 그리고 그들에 버금가는 실력과 정의감을 갖춘 '집단지성'의 참여로 승부가 판가름 난 것이다.

7일 저녁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에게 "조만간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강 기자는 얼마 전 내 말을 '알쏭달쏭한 격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튿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장인 법대 교수가 찾아왔다. 예상대로, 대학 본부에서 황 교수팀의 연구 의혹에 관한 조사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가 표한 공감을 총장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15일까지 온갖 방해 공작이 난무했지만, 진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지금이라면 어떨까? 종종 생각해보곤 한다.

'제보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처음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러한 '대반전'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까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영화는 내 기대와는 달리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실제와 전혀 달리 밋밋하게 묘사되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하더라도 실제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니, 같을 필요도 같을 이유도 없다.

영화는 영화일 따름이다. 그러니 '대반전'의 실상이 영화에 그려지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화를 훨씬 박진감 있게 만들고 사건의 역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아쉽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영화에서는 '피디 추적'이 벼랑 끝에 몰리자 제보자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다. 거기에 대해 윤민철 피디는 문제 해결은 자기 몫이라며 만류한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실제대로 제보자에게 나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렸다면?

그런 행위를 탓하는 관객도 없지 않을 테지만 더 많은 관객들은 당시의 다급한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이다. 또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건 영웅이 아니라 좌절하고 위축되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사람들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피디는 고뇌 끝에 제보자에게 했던 무리한 요청을 거두어들였다. 자신의 책 개정판 제목처럼 "진실, 그것을 믿었다."

양동옥의 S스토리

부모가 함께하는 내 아이 성교육 〈1〉

양 동 옥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부모가 함께하는 내 아이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에서 낸 좋은 구상 덕분에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의 성에 관심을 두고, 자녀의 든든한 성교육자로서 역할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가고 접근해야 하는지 뿌연 안개처럼 답답한 마음을 긴 한숨으로 호소했다. 다행히 교육의 자리를 빌려 부모의 궁금증을 다소 해결하고 아이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다.

시간을 돌려 임신의 순간으로 되돌려보자. 약 38주간의 태내기 동안, 산모는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정서적 안정을 취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소원했다. 이는 가족 모두의 소망이며 그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가족의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바뀌게 된다. 이제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흔히 말하는 본능에 충실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란다. 또 영아기가 되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여느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자녀가 제때 걸음마를 떼고, 대소변을 가리고, 숟가락질할 수 있도록 신체의 근육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유아기가 되면 부모는 걱정이 생긴다. 부모의 품을 벗어난 자녀가 유치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나 또래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등에 관한 것이다.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남녀가 짝이 되어 춤을 추는데, 내 아이만 짝도 없이 혼자 춤을 춘다.'며 서럽게 울던 한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렇다. 유치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자녀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 더 바랄 것도 없이 이것이 부모의 순수한 마음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기가 되면 부모는 더는 순수한 존재가 아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 운동, 친구 사귀기 등의 여러 영역에서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부모는 조바심을 내며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경쟁구조 속에 아이의 등을 떠민다. 또 남들보다 뛰어난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모는 정신적, 물리적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는다. 되돌아보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의 순수한 바람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이라는 욕망의 변화 속에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제공했다. 그 가르침 속에 내 아이가 '성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성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대화나 가르침이 있었는지 반문해 보자.

성(性)은 본능이자 학습이다. 성적 호기심이나 욕망이 거역할 수 없는 본능의 발로라면,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충족하느냐는 학습의 결과물이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해 줘야 한다. 부모가 성교육의 방관자로서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는 가정 밖 또래나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성을 학습하게 된다. 사실, 대다수 부모는 자녀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자신도 원가족(原 家族)과 그러한 성적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에게 다가가기 쑥스러워한다. 그나마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도 성행위 중심의 결과론적 문제 발생에 초점을 두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성적 대화라는 것은 고작 두려움, 금기, 억압을 강요하는 데 그친다.

사실, 성교육 강의 일주일 전에 지원자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적으로 궁금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을 질문하도록 했다. 그 내용을 모아서 부모들의 성적 궁금증을 공유하고 주제별로 자녀와 성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기대와 달리, 부모의 질문들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실망했던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 관한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떤 금기를 깨듯 매우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질문의 내용이 자녀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의 두려움 표현, 그리고 자녀의 성을 금기와 억압으로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들의 성은 21세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빠르게 발달하고 표현하는데, 부모의 성적 태도나 신념은 19세기 후반의 빅토리아왕조 시대의 보수적 사고를 고수하고 있었다.

결국 '부모가 함께하는 내 아이 성교육'은 '부모 성교육'으로 옮겨갔다. 부모가 성을 탁하고 어두운색으로 투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도 그러한 성의 모습만을 강요하게 된다. 자녀와 성적 대화를 준비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나와 배우자는 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배우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지, 사춘기의 성을 금기나 억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들과 딸에게 다른 성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은지 등이다. 세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 하나 잠깐 쉬자는 말없이 강의에 눈을 반짝여주고, 강의가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끝난 후에도 쉼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에게 다가가려는 부모의 애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기 고

亞문화전당에 한국전통복식 반드시 담아야

김 옥 진
전남대 명예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이자 상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장차 '아시아문화의 허브'가 될 걸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만큼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 예술의전당과 같은 기존의 공연전시시설과 달리 반드시 '문화'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대국민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 예술의전당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보이질 않는다. 더욱이, 복식미학전문가인 나는 그동안 "문화전당 개관식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의 외국복식으로만 구성하였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 지역의 특성 그리고 건축·예술양식을 담고 있는 한국전통복식은 편성되지 않았다"는 매우 실망스런 얘기를 관련 실무자로부터 들어야 했다.

한국전통복식은 우리의 전통성에 뿌리를 두면서도 항상 새로운 문화에 대해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로서 스토리텔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예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2부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아시아드의 노래'와 '아리랑 판타지'를 열창하면서 입었던 흑과 백이 화려하게 조합된 의상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 실루엣은 조선시대 스란치마와 대란치마에서, 앞 옷자락은 당의(唐衣)의 옷자락에서, 소매는 원삼(圓衫)·적의(翟衣)에서 원용조합한 것이다. 얼핏 보면 서양 의상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감각에 부합하는 지극히 '한국적' 의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모방할 수 없는 형상이다.

지난 9월 3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회의에서 한 민간위촉위원이 전당 개관 프로그램에 한국전통복식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고, 나도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에 건의 메일을 두 차례나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당기획과에 따르면,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 한다. 하지만 '한국전통복식'이 추가편성될 거라는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부디, 문화전당 개관식 프로그램에 '한국전통복식'이 필히 포함되어 온 국민,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전통복식을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아시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전통복식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한국전통복식이 작품화, 산업화, 세계화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명품 콘텐츠로 자리매김될 수 있길 기대한다.

社 說

우후죽순 펜션·민박 안전 사각지대라니

펜션과 민박시설 등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도 법과 제도는 겉돌고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과 업주의 불감증이 맞물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펜션 대부분이 목재 등 가연성 물질로 시설돼 있고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유도등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본보가 16일 담양 펜션 화재참사를 계기로 이 일대 펜션과 민박시설을 취재한 결과, 산 중턱에 위치한 A펜션은 발코니와 지붕 등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바비큐장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방안에는 화재감지기는 물론 유도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밤 시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도등이 없는 탓에 빠져나갈 입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또 다른 B펜션의 경우도 방안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나 배터리 수명이 다한 탓에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소방특별점검에 대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았다는 의심을 살만했다.

특히 소규모 펜션과 민박시설 등은 연 면적 1000㎡ 규모 이하의 숙박업으로서 1년에 두 차례 위생 점검만 받을 뿐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의 취약지대로 꼽혀왔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에는 소방시설 점검 제외 대상인 숙박시설은 관광 펜션 22개, 한옥체험형 펜션 241개, 농어촌 민박 3736개, 관광농원 67개, 생활형 펜션 88개 등 4154곳에 이른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참사가 난 뒤 유사 시설의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법석을 떨며 뒷북을 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비큐장의 실내 설치 불허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해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후진국형 인재(人災)에 당할 수만은 없다.

전남 잇단 가축 전염병 근본대책 세워야

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이 연이은 가축 전염병으로 방역에 초비상이다. 닭·오리농가를 휩쓸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번에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번져 사육농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동안 사육농가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최근 돼지 유행성 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적극적인 방역 지도에 나섰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이 50% 이상으로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올해 전남에서 6개 시·군 7개 농가에서 4341마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올 초 발생한 AI는 최근까지 전남지역 12개 시·군으로 번져 오리·닭 농가를 초토화시켰다.

우선은 전남도 등 방역당국이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겠지만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축 전염병은 몇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상시로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축사육제도에 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육농가들 대부분은 밀집형 사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비좁은 축사에서 가축을 키우다 보니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해법은 자명하다.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사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밀식 금지를 통해 가축들이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FTA까지 겹친 마당에 전남 축산의 활로를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금호산업

호남의 대표 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는 1946년 설립한 광주택시다.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은 자본금 17만 원으로 중고택시 2대를 구입해 택시 영업을 시작했고 점차 버스로 영역을 넓혀 지금의 금호고속으로 키웠다.

이후 건설과 타이어 사업을 더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을 만들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과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해 한 때 재계 서열 8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무리한 인수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들 기업을 재매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의 3남과 4남이 경영권 분쟁과 계열분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20년동안 이어온 형제경영이 깨졌다. 2009년 시작된 형제간의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져 양측간 소송만 90여 건에 달하고 그룹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금호산업은 2010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경영권이 채권단 손에 있고 금호고속은 2011년 금호산업에서 분리돼 이듬해 사모펀드에 넘어갔다.

그룹의 모태 기업과 지주회사가 모두 남의 손에 들어간 터라 금호 입장에선 두 기업을 되찾아 오는 것이 숙명과도 같은 일이 됐다.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금호산업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금호터미널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금호산업은 57.5%의 지분을 가진 채권단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고 금호고속도 사모펀드가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주인을 찾고 있다. 금호 측이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다지만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호반건설이 주식시장에서 금호산업 지분 매입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순 투자인지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호고속 최대주주인 사모펀드가 금호 측 사장을 경질한 것도 악재다.

진퇴양난에 처한 금호그룹의 모태기업 되찾기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그것은 창업주의 형제경영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